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인의 손에서 구해 내시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칭호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보게 되면 "나는 곧 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존(自存)하심과 영원(永遠)하심 그리고 절대 유일(唯一)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에 진노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 만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유한한 우리 피조물이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없는 무한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떤 것이 있게 하는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반면 우상은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피조물 자신들이 만든 것입니다. 신4:28 말씀에는 우상을 일컬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렘 10:3부터 말씀에는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한심함을 적절히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악의 본성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죽어있는 우상을 더 신뢰하고 그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목석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 놓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러한 죽어있는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섬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오직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렘10:6)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렘10:10)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이 붙어 있어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발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신발의 의미는 주로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복음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종이 되기를 자처할 때 아버지는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눅15:22).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서있는 모세의 신분을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의미는 어떠한 일에 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룻기에 보면 기업을 무를 자가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신을 벗음으로 책임을 면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신을 벗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것이 모세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즉 모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듭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이름을 알려 주시며,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병이 깨끗해지는 이적을 보여 주시는데도 모세는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징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22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모이는 것일까요?

사실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의 민족을 애굽의 학대로부터 구하기 위해 직접 행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는 고되게 노동에 시달리며 애굽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행7: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듣게 된 히브리 사람의 반응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애굽의 바로왕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자신의 동족과도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겨가게 되었는데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올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때는 애굽 바로의 궁에서 왕족으로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며 처가살이하는 별볼일 없는 목동입니다. 그 때는 마흔 살의 젊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후로 40년이나 지난 초로(初老)의 노인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모세는 애굽의 바로 궁에서 살며 왕족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흔 살의 힘이 있는 모세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세는 그런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힘이 빠진 80세의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쫓기고 자신의 동족에게 무시당했던 실패한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는 잊혀진 모세, 별볼일 없는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잘 나가는 모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세,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모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끄집어 내고 건져내는 것은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능력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구해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세를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2:6-8)."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으니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은 그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하고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분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만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